논어 14편 헌문 31장 · 원문·풀이

子貢方人。子曰：「賜也，賢乎哉？夫我則不暇！」

독음 · 자공방인 자왈 사야 현호재 부아즉불가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공이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자 공자는 자신을 닦기에도 바빠 남을 평가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方 모 방 / 人 사람 인

曰 가로 왈 / 賜 줄 사 사 / 也 어조사 야 / 賢 어질 현 현

乎 어조사 호 / 哉 비로소 재 재 / 夫 지아비 부 부 / 我 자기 아 아

則 곧 즉 / 不 아닐 불 / 暇 겨를 가 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